

지난 10년간 청년층 켅거루족 특성 변화

정현상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hsjung@kli.re.kr)



KLI PANEL

Brief

• 한국노동패널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중 09표본을 사용하여 지난 10년간 25~39세 청년층 켅거루족 특성 변화를 살펴봄.

- 켅거루족 여부별 혹은 켅거루족 내에서의 인적특성 및 가구특성, 경제활동상태,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등의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와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주거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청년층 켅거루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켅거루족 비중은 줄어들지만 이전에 비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령층 켅거루족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최근 켅거루족은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켅거루족 가구의 70% 이상은 자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켅거루족 균등화가구소득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켅거루족 고소득층 가구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
 - 켅거루족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켅거루족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미취업자 켅거루족 비중의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7년 이후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켅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남.
 - 켅거루족 중에서 절반 이상은 취업자이며 이 중 70% 이상이 상용직으로 나타났음. 켅거루족 임금근로자를 월평균 임급의 평균값으로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2012년 38.7%였으나 2021년 17.6%까지 줄어들었음.
 - 생활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및 현재 행복도 같은 인식조사에서 켅거루족은 비켅거루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켅거루족 중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상용직이거나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은 미혼 청년층의 켅거루족 비중이 상승추세를 보임.
 - 기혼자의 대부분은 비켅거루족으로 결혼여부가 켅거루족을 탈출하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만혼이나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의 증가는 청년층 켅거루족 증가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함.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최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만혼이나 비혼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탁하여 살아가는 ‘캥거루족¹⁾’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모세대의 노후보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층의 주거독립이 늦어지는 것은 대학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최근에는 대학진학 이후 졸업까지의 기간인 교육연한이 증가하면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기 때문이며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도 주요인으로 보임.
 -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증가하거나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포기 혹은 늦추거나 주택구입이 어려워 부모에게 주거를 의존하는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캥거루족’의 동향을 살펴보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함.

2. 분석 대상 및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중 09표본을 사용한 것으로, 25~39세²⁾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 이 글에서는 15~25세 청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우리사회 특성상 성인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서양에 비해 당연시되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해당 연령대에서 군복무를 경험하고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인해 정규교육기관 재학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³⁾
 -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모든 분석에는 09통합표본 가구가중치 및 개인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음.

〈표 1〉 연도별 분석 표본수

(단위: 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		2,417	2,336	2,123	2,224	2,176	2,173	2,138	2,074	1,976	1,875
개인	20대 후반	761	694	623	705	707	798	818	779	757	738
	30대	2,638	2,542	2,269	2,326	2,274	2,199	2,109	2,043	1,906	1,780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1) 캥거루족 관련 기존연구를 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는 청년,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 정의하였음. 경제적 독립에서 주거 독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기존 연구에서 주거 의존적인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정의하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임.

2) 청년층을 39세까지로 규정한 것은 만혼의 영향으로 초혼 연령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임.

3) 이러한 이유로 연구마다 캥거루족을 나누는 연령기준이 다양함.

3. 쉐거루족 인적 및 가구 특성

- 쉐거루족 비중은 2015년 이전 30% 초반대에서 정체 중이었다가 2015년 이후 상승하여 2021년 44.9%로 나타남(표 2 참조).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쉐거루족 비중이 상승추세를 보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중이 높지만 2012년 대비 2021년 상승폭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남성 8.3%p ↑, 여성 14.0%p ↑).
 - 남성의 쉐거루족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은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여성에 비해 사회진입과 결혼연령이 늦기 때문으로 보임.
 - 연령별로 보면 쉐거루족 비중은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낮아지지만 과거에 비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령층의 쉐거루족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최근 쉐거루족 증가는 대체로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연령별 쉐거루족 비중을 살펴본 [그림 1]을 보면 2012년에 비해 2021년 29~31세까지의 쉐거루족 비중은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2~34세의 경우도 2021년 쉐거루족 비중이 2012년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졌고 최근 만혼이나 비혼주의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미혼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 쉐거루족 여부 변화 추이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쉐거루족	34.0	33.0	31.1	35.0	36.8	39.2	40.1	42.1	43.4	44.9
비쉐거루족	66.1	67.0	68.9	65.0	63.2	60.8	59.9	57.9	56.6	55.1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3〉 인적특성별 쉐거루족¹⁾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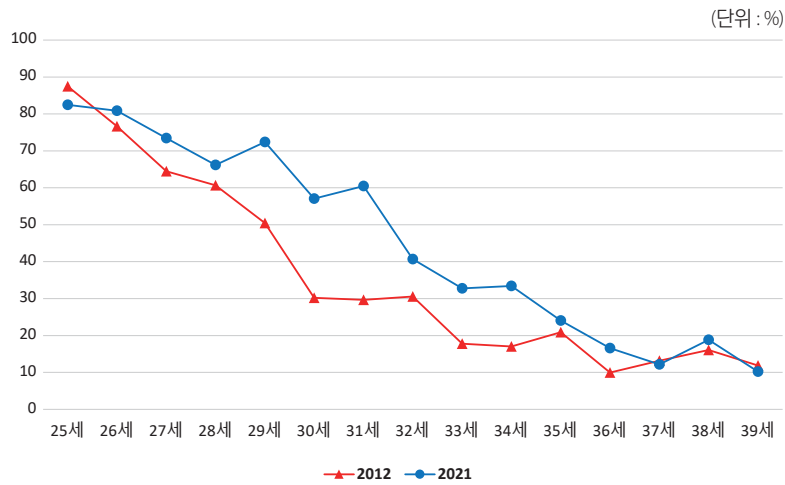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별	남	40.2	39.6	36.9	41.4	42.5	44.6	44.9	48.2	49.1	48.5
	여	26.8	25.5	24.3	27.6	30.2	33.3	34.7	35.2	36.7	40.8
연령별	20대 후반	66.9	65.2	62.1	69.6	70.6	73.5	74.4	76.7	75.6	75.3
	30대 초반	25.5	25.8	24.1	28.0	30.8	35.0	35.2	39.8	42.8	45.5
	30대 후반	14.6	13.8	11.3	12.1	15.4	15.2	15.0	15.1	15.5	15.8
기혼 여부	미혼	67.1	64.9	61.3	65.0	66.7	69.1	68.7	69.6	69.1	68.2
	기혼	4.6	4.2	3.0	3.2	3.5	3.6	3.4	3.7	2.2	2.1
지역별	수도권	34.8	34.0	31.3	36.7	38.9	41.3	42.8	43.9	45.8	45.9
	비수도권	33.0	32.0	30.9	33.3	34.5	36.9	37.0	40.0	40.5	43.8
학력별	고졸 이하	28.7	30.5	27.0	30.0	33.6	35.0	34.9	37.9	37.4	39.0
	전문대졸	32.0	28.5	25.3	30.9	32.5	35.0	36.4	38.0	42.9	44.5
	대졸 이상	32.9	31.3	30.0	33.3	35.1	39.0	41.0	42.3	42.3	44.7
	전문대 이상 재학 ²⁾	69.3	66.5	64.2	66.6	66.3	70.9	68.0	72.8	76.4	74.2

주: 1) 표에는 각 인적특성별 쉐거루족 비중만 제시.

2)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및 휴학생.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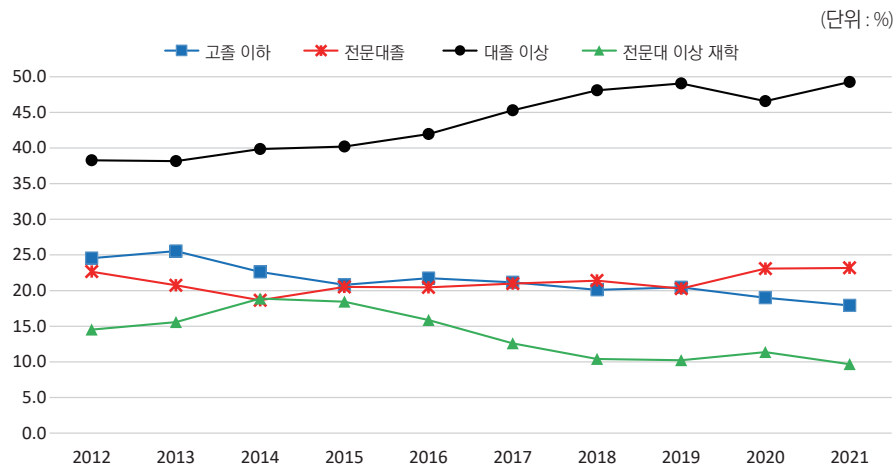
[그림 1] 2012년, 2021년 썬거루족 연령별 분포 비교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4, 23차 자료.

- 청년층 미혼인구의 2/3가량은 썬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 68.2%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썬거루족이 더 크게 증가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 학력에서 썬거루족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대비 2021년 썬거루족 비중은 전문대 이상 재학 학력층⁴⁾에서 4.9%p, 고졸 이하 10.3%p, 대졸 이상 11.8%p,⁵⁾ 전문대졸 12.5%p 순으로 상승하여 전문대 이상 재학생 외 전 학력층에서 지난 10년간 10%p 이상 썬거루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썬거루족의 학력별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데 최근 썬거루족은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38.3% → 2021년 49.3%). 이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증가 영향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2] 썬거루족 학력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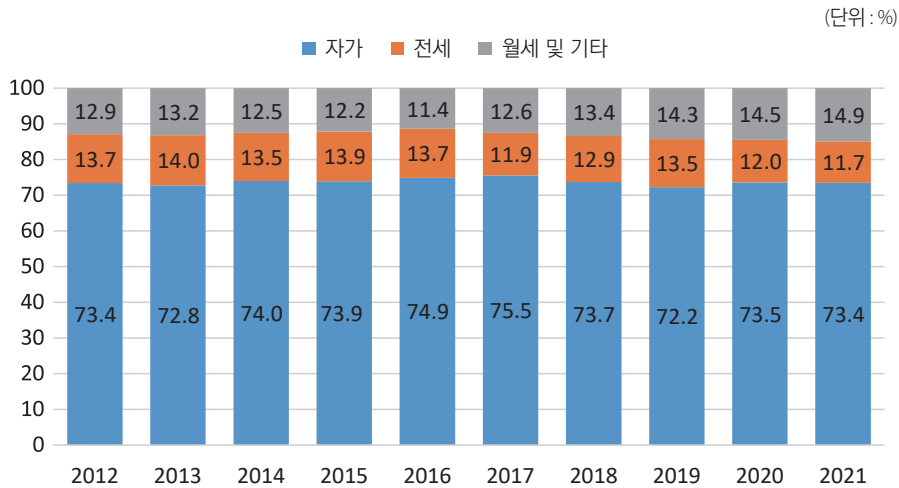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4~23차.

4) 휴학생 포함.

5) 석사 이상에서는 중퇴자 포함.

- 쉐거루족 가구의 입주형태는 대부분이 자가로 나타남.
 - 입주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로 나누었을 때 쉐거루족 가구의 70% 이상은 자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도별로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임. 반면 비쉐거루족의 입주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자가 약 37%, 전세 33.9%, 월세 및 기타 2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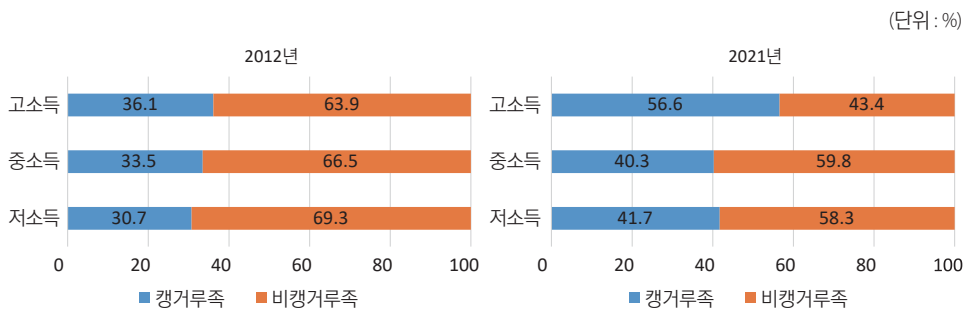
[그림 3] 쉐거루족 가구의 입주형태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 쉐거루족 여부별 가구소득⁶⁾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2년 저소득 가구 중 30.7%가 쉐거루족으로 나타났고 중소득 가구는 33.5%, 고소득 가구는 36.1%로 나타났음. 반면 2021년에는 각각 41.7%, 40.3%, 56.6%로 나타나 최근 들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쉐거루족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고소득 가구의 쉐거루족 증가폭이 두드러졌음(그림 4 참조).
- 쉐거루족 가구 중에서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가구의 비율을 보면 2012년 각각 30.6%, 33.4%, 36.0%로 각 분위별 쉐거루족의 분포의 차이가 대략 2~5%p 내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2%, 29.2%, 40.6%로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다른 두 분위의 가구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쉐거루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2012년과 2021년 쉐거루족 여부별 가구소득 변화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6) t-1기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이며 각 가구의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여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4. 쟁거루족 경제활동상태 변화

- 청년층의 사회진출은 경제적 독립을 통한 비쟁거루족으로의 탈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들어 취업자의 경우에도 쟁거루족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취업자 중 쟁거루족 비중은 상승추세를 보이며 2021년 39.1%, 쟁거루족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60% 이상으로 나타남.
 - 쟁거루족 중 미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미취업자 중에서도 쟁거루족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의 쟁거루족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됨.

〈표 4〉 쟁거루족 취업여부별 변화 및 취업자, 미취업자 쟁거루족 여부 변화 추이

(단위: %)

	쟁거루족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자	미취업자	쟁거루족	비쟁거루족	쟁거루족	비쟁거루족
2012	64.1	35.9	31.5	68.5	39.4	60.6
2013	66.3	33.7	30.8	69.2	38.5	61.5
2014	64.0	36.0	28.3	71.7	37.8	62.2
2015	64.1	35.9	31.8	68.2	42.9	57.1
2016	61.1	38.9	32.2	67.8	47.6	52.5
2017	62.3	37.7	34.6	65.4	50.5	49.5
2018	64.2	35.8	36.3	63.7	49.5	50.5
2019	63.5	36.5	37.9	62.1	52.2	47.8
2020	59.8	40.2	37.6	62.4	56.2	43.8
2021	60.8	39.3	39.1	60.9	58.5	41.5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5〉 쟁거루족 종사상지위별 변화 및 종사상지위별 쟁거루족 여부에 따른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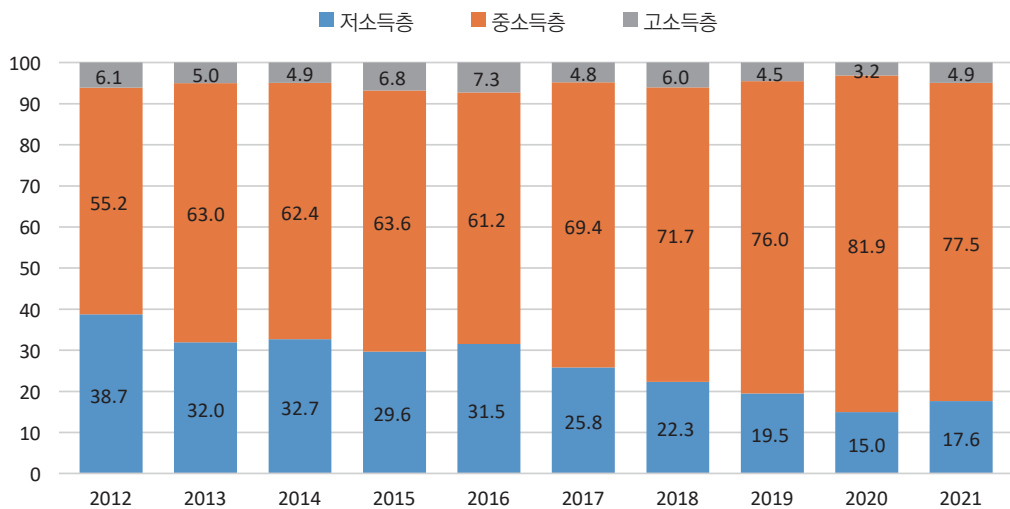
	쟁거루족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	쟁거루족	비쟁거루족	쟁거루족	비쟁거루족	쟁거루족	비쟁거루족
2012	72.3	17.3	10.4	30.2	69.8	44.1	55.9	27.0	73.0
2013	73.4	17.6	9.0	29.7	70.3	43.4	56.6	24.0	76.0
2014	72.1	18.7	9.2	27.0	73.0	40.6	59.4	22.9	77.1
2015	77.0	15.4	7.6	31.5	68.5	42.9	57.1	22.2	77.8
2016	71.9	17.4	10.7	30.4	69.7	44.7	55.3	30.7	69.3
2017	71.6	18.2	10.3	32.9	67.1	48.4	51.6	30.3	69.8
2018	73.5	18.1	8.4	35.4	64.6	51.6	48.4	25.4	74.6
2019	72.1	21.0	6.9	36.1	63.9	57.3	42.7	25.0	75.0
2020	74.4	18.6	7.0	36.8	63.2	51.7	48.4	25.1	74.9
2021	75.5	18.6	6.0	38.7	61.3	53.2	46.8	23.1	76.9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쉐어러족의 약 70%가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일 때 비쉐어러족 비중이 쉐어러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쉐어러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2년 임시일용직의 경우 비쉐어러족 비중이 쉐어러족에 비해 10%p 이상 높았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쉐어러족의 비중이 상회하여 최근 임시일용직의 절반 이상은 쉐어러족인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최근 들어 쉐어러족 비중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쉐어러족 임금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 쉐어러족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월평균임금을 저소득층, 중소소득층, 고소득층⁷⁾으로 나누어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
 - 2012년 쉐어러족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38.7%로 쉐어러족 3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근로자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20년 15%까지 하락했고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한 17.6%를 기록함.
 - 쉐어러족 고소득층의 비중은 3~7% 사이에서 등락이 지속 중이고 중소소득층의 경우 2012년 50% 수준에서 최근 약 80% 수준까지 증가했음.
 - 기존연구⁸⁾에서처럼 2010년대 중반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쉐어러족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쉐어러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각 연도 월평균임금의 평균에서 2/3 미만을 저소득층, 2/3 이상-4/3 미만을 중소소득층, 4/3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함.

8) 오호영(2015), 『쉐어러족의 실태와 과제』, 『KRIVET Issue Brief』.

5. 쉼거루족 생활만족도 변화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조사 중이며 여기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만족함’으로 합하여 쉼거루족의 생활만족도별 ‘만족함’의 비중을 살펴보았음.⁹⁾
 - 분석기간 동안 쉼거루족의 생활만족도는 비쉼거루족에 비해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쉼거루족 주거환경에 ‘만족함’ 비중은 50%대에서, 가족관계는 60%대에서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는 반면 비 쉼거루족의 ‘만족함’ 비중은 쉼거루족에 비해 약 10%p 상회하여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함’ 비중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가족수입으로 2021년 기준 쉼거루족은 19.3%, 비쉼거루족은 25.9%로 나타남.
 -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함’ 비중은 쉼거루족과 비쉼거루족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
 - 5년 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서는 쉼거루족 ‘만족함’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비쉼거루족의 ‘만족함’ 비중이 약 15%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체로 부모에게 주거를 의존하고 있는 청년층에 비해 주거독립을 이룬 청년층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쉼거루족 및 비쉼거루족 생활만족도별 ‘만족함’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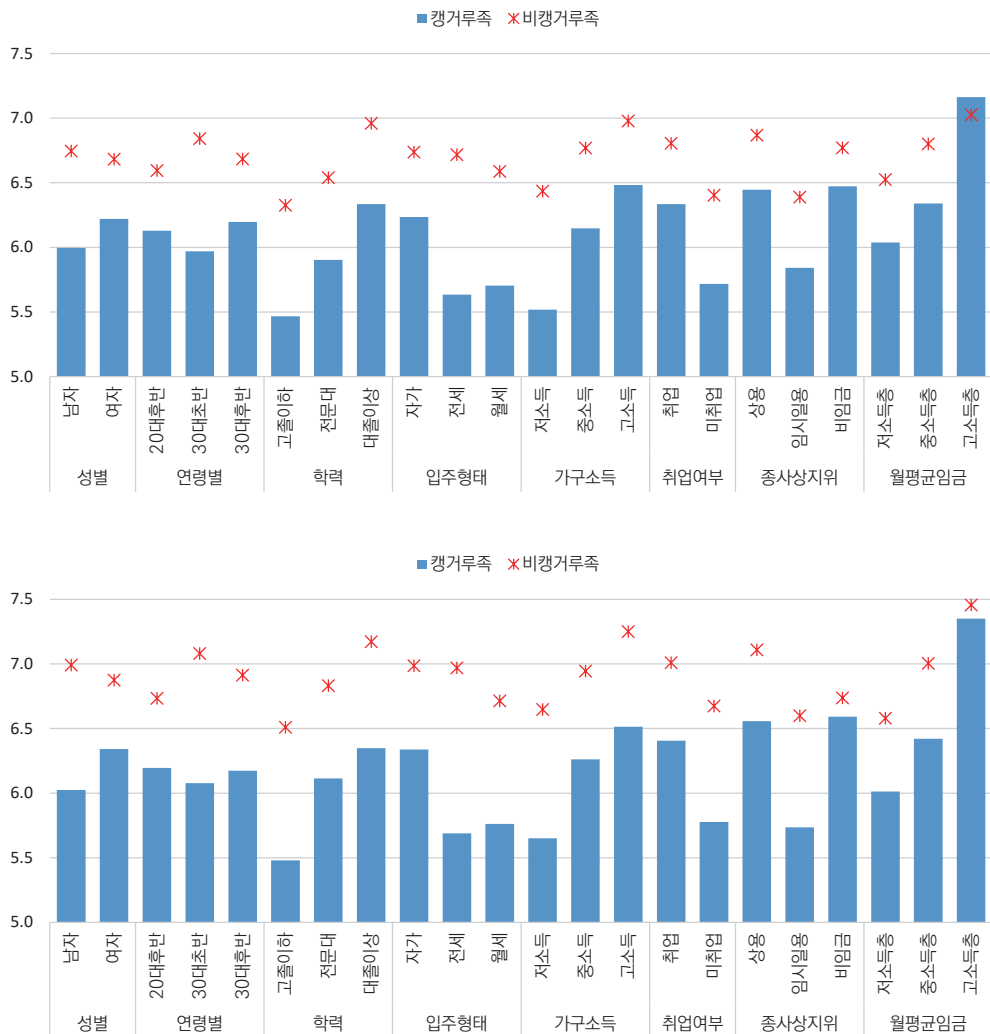
	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	5년 후 전반적 삶
2012	18.0 (26.4)	30.1 (39.5)	46.6 (55.5)	65.2 (74.4)	51.5 (65.3)	49.9 (62.6)	42.0 (59.0)	-
2013	16.9 (28.2)	26.2 (40.9)	45.4 (56.9)	61.8 (76.7)	44.5 (64.2)	45.0 (63.4)	39.9 (58.8)	-
2014	20.3 (26.9)	32.1 (38.8)	52.5 (57.4)	66.3 (75.5)	49.6 (61.6)	49.0 (60.5)	48.3 (56.7)	-
2015	23.8 (29.4)	30.6 (38.6)	50.4 (58.4)	64.9 (75.0)	45.8 (59.4)	51.5 (60.5)	46.3 (59.5)	-
2016	23.0 (26.7)	29.9 (36.9)	51.4 (59.5)	65.1 (75.4)	45.6 (59.2)	50.0 (60.6)	45.4 (59.2)	-
2017	20.0 (29.6)	26.7 (40.6)	51.6 (62.1)	64.0 (76.6)	45.0 (61.3)	48.2 (57.2)	42.8 (60.9)	55.6 (70.0)
2018	21.5 (28.6)	27.0 (45.5)	47.4 (62.5)	58.7 (74.5)	38.6 (60.3)	41.1 (61.8)	36.1 (61.5)	53.5 (71.2)
2019	23.2 (27.5)	27.5 (42.3)	48.8 (62.5)	60.1 (75.5)	39.8 (58.4)	41.8 (57.9)	38.9 (59.0)	55.0 (71.5)
2020	21.9 (25.1)	26.9 (37.2)	50.1 (64.4)	61.6 (76.2)	38.8 (50.5)	38.3 (50.4)	35.5 (53.9)	56.2 (68.5)
2021	19.3 (25.9)	23.3 (34.0)	48.1 (59.5)	63.9 (74.0)	42.6 (48.3)	38.5 (45.4)	34.3 (52.1)	52.8 (67.4)

주 : 괄호 안은 비쉼거루족의 ‘만족함’ 비중.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15~24차 학술대회용 자료.

9) 그 외 보통과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있음.

- [그림 6]은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와 현재 행복도¹⁰⁾에 관하여 10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켜거루족과 비켄거루족의 인적특성 및 경제상태별 평균평점을 보여주고 있음.
 - 켄거루족 인적특성 및 경제상태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비켄거루족에 비해 대부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를 의존하고 있는 켄거루족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가 자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켄거루족이 취업자인 경우, 상용직 혹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주형태를 제외하면 비켄거루족에게서도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고 있음.

[그림 6] 2021년 켄거루족과 비켄거루족 인적특성 및 경제상태별 평균 삶의 만족도(상단) 및 행복도(하단)
(단위: 점)



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 09통합표본 24차 학술대회용 자료.

10)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및 행복도가 높음.

6. 요약 및 시사점

- 지난 10년간 25~39세 청년층의 쉐어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12년 쉐어족 비중은 34.0%로 청년층의 1/3가량이 부모에게 주거를 의존하는 쉐어족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2018년 처음으로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2021년 현재 44.9%를 기록하여 2012년에 비해 11.0%p 상승하였음. 향후 청년층 쉐어족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나갈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남성이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진입 시기가 늦고 결혼 연령이 높기 때문에 쉐어족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여성 쉐어족 비중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가 줄어들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쉐어족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9~31세 쉐어족 비중이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하여 30대 초반 연령층의 쉐어족 비중 상승이 전체 청년층 쉐어족 비중 상승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임(20대 초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각각 2012년 대비 2021년 8.4%p ↑, 20.0%p ↑, 1.2%p ↑).
 - 쉐어족 가구의 2/3가량은 자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중변화가 미미했음. 또한 쉐어족 공동화가구소득을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그룹에서 쉐어족 비중이 지난 10년간 증가했는데 특히 고소득 가구 비중(2012년 대비 2021년 20.5%p ↑)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쉐어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임.
 - 쉐어족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쉐어족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미취업자 쉐어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7년 이후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쉐어족인 것으로 나타남.
 - 쉐어족 중 절반 이상은 취업자이며 이 중 70% 이상이 상용직으로 나타났음. 쉐어족 임금근로자를 월평균 임급의 평균값으로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2012년 38.7%였으나 2021년 17.6%까지 줄어들었음.
 - 생활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및 현재 행복도 같은 인식조사에서 쉐어족은 비쉐어족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0년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쉐어족 비중은 점점 증가했는데,
 - 기존연구에서처럼 가구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쉐어족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들어 그 현상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쉐어족 학력 비중은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에서 점차 늘어나는 것(2012년 대비 2021년 11.0%p 상승한 49.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연한 증가나 노동시장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2021년 대졸 이상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후반에서 1.3%p 하락했고 30대 초반에서 2.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상용직이거나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나쁘지 않은 미혼 청년층의 쉐어족 비중 증가추세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쉐어족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기존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인데, 최근 상승하고 있는 주거비용 등으로 인하여 월수입이 높더라도 부모에게 주거의존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¹¹⁾

- 기혼자 중 쉼거루족 비중은 5% 미만인 것으로 보아 결혼여부가 쉼거루족을 탈출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 최근 만혼이나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의 증가는 청년층 쉼거루족 증가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함.
- 또한 생활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인식조사에서 쉼거루족의 만족감이 비쉼거루족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혼인여부나 소득, 취업 등 어떤 영향 때문인지 계량경제학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보임,
-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주거의존성만으로 쉼거루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향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연구가 발전될 필요가 있음.

11) 노동패널 기준으로 분석기간인 2012년 대비 2021년 자가 구입비용은 1.9배, 전세보증금은 1.8배, 월세금은 1.4배 증가.

참고문헌

- 오호영(2015), 「쉼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KRIVET Issue Brief』 제81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_____(2017), 「쉼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KLl 패널 워킹페이퍼』 제7호, 한국노동연구원.